



경제·제도적 지원보다 중요한 건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아이가 꿈이다

광주일보 연중기획 | ♥DREAM 프로젝트

제1부 저출산의 뒷

〈20〉인구교육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들때면 출산 장려금 지원, 다자녀 혜택, 출산·양육 휴가 및 휴직, 맞벌이부부 아이돌봄 강화, 영유아 부모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시대 변화, 가치관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선 경제 및 제도적 지원 강화만큼이나 '인구교육'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경제·제도적 지원만큼이나 '참된 행복과 자녀를 얻기 위해 결혼하고 부모가 되는 것'을 선택해 가족을 완성하려는 개인의 가치관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인구교육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 통계 등에서 쉽게 확인된다. 설문에 응한 우리 사회 미혼남녀 절반가량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 요인보다는 가치관적 요인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여성 70%, 결혼 않는 이유는 '가치관' 때문=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 전국 출산력 조사'를 보면, 결혼의향이 없는 30~44세 미혼남녀(남성446명, 여성 393명)가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경제적 요인, 개인 가치관, 건강 및 시간부족 등 기타 요인이다.

미혼여성들 경제문제 보다

가치관 때문에 결혼·출산에 부정적

참된 행복과 자녀 얻기 위해

결혼하고 부모가 되는 것 선택하는

개인 가치관·문화 형성 교육 필요

남성 41.6%와 여성 18.9%는 경제적 요인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가치관의 영역에 속한 요인으로 지목한 남성은 응답자의 41.3%, 여성은 69.1%였다.

여성 10명 중 7명(69.1%)은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이다(1.2%)', 결혼 적기를 놓쳤다(6.5%), 상대방에게 구속당하기 싫다(4.4%), 결혼보다 내일에 집중하고 싶다(9.2%),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32.5%), 결혼 제도가 남자집안 중심이기 때문이다(4.3%), 결혼할 생각 자체가 없다(11.0%)며 가치관의 영역에 속한 이유를 들며 결혼에 부정적이었다.

남성 응답자 41.3%는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

람을 만나지 못해서(17.2%), 결혼 적기를 놓쳐서(7.1%), 결혼할 생각 자체가 없어서(6.8%)라는 등 가치관 영역에 속한 이유(41.3%)를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지목했다.

이밖에 남성 17.1%, 여성 12%는 건강 및 시간부족 등 기타 이유로 결혼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자녀, 꼭 있어야 한다' 응답, 남녀 각각 40%, 28%= 같은 조사에서 미혼남녀(20~44세, 남녀 각각 1096명, 1287명)에게 자녀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남성 39.9%, 미혼여성 28.4%로 그쳤다.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남성 17.5%, 미혼여성 29.5%로 나타났다.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에게서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양육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돼 있는데다 취업여성의 경우 기회비용이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는 게 연구진 설명이다. '자녀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남성의 경우 40.6%, 미혼여성 40.0%였다.

앞서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미혼남성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40.2%),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30.1%),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26.9%) 등의 순으로 답했다. 미혼여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36.2%), '자녀가 있

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32.0%),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21.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미혼남녀 모두 경제적 요인보다는 가치관적 요인에 따라 무자녀를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인구교육의 왜 하나?



올 봄 전남도교육청 지정 인구교육 연구학교인 빛가람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인구교육 연구학교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빛가람초는 2년간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인구교육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전남도교육청>

저출산 고령화 심각한 상황 ... 교육 통해 국가의 적절한 인구유지 꾀하기

인구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을 통해 국가 및 민족적으로 적절한 인구유지를 꾀하려는 것이다.

19세기 이후 산업, 과학, 의학 발달에 힘입어 늘어나는 인구와 그 수요에 대한 관심 및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생겨났다. 가족계획사업, 영유아 및 모성보호, 성교육, 인구의학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경우 저출산, 인구 고령화가 지적된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우리 사회는 급속히 인구구조가 변화됐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

각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은 출산율 회복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우리나라 인구교육도 자연스럽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참된 행복과 자녀를 얻기 위해 결혼하고 부모가 되는 것'을 선택하여 가족을 완성하는 게 좋다'는 인식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 확산하는 것이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제7조의2(인구교육)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가 우리의 당면 과제이며, 국가와 자치단체에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 활성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